새해 새 설계

이의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광주·전남 6차산업 중심지로"

'농공상 1사 1특허'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외시장 개척 적극 지원

"웰빙(Well- being) 시대의 최적지인 광주·전남은 올해 6차 산업의 부흥이 예고됩니다. '농·공·상 1사 1특허 운동'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이의준(55)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은 지난 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차 산업 부흥의 적임자인 우리 지역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전국 300개 가운데 112개(32%)를 차지,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판로 확대를 위해 '농·공·상 6차산업 CEO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전남을 전국 6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도가 가진 장점은 상부상조하는 분위기와 첨단산업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경제여건, 풍부한 자연과 천연자원 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며 "창조경제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신산업 분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가 '손톱 밑 가시뽑기' 등 중소기업 우대책을 펼친 것과 관련해 달라진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환경도 설명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우리 지역에선 28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 7건을 개선하는 등 이전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자평한 뒤 "민간차원에서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옴부즈만 지원단'을 새롭게 정비하고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올해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창조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지역 기업인에 대한 주문도 남겼다.

이 청장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중소기업이 '창조경영'을 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노동력이나 생산성 중심에서 벗어날 것 ▲대기업하청 및 원가경쟁 방식보다 창조성과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 ▲창의적 아이디어로 내부보다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올 2월 취임 2주년을 맞는 이 청장은 지난해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무등벤처포럼의 결성, 창업지원단을 구성하고 시제품 제작터를 만드는 등 창업 기반마련을 통해 광주 56%, 전남 32%의 전년 대비 창업증가율을 달성했다. 또 지난해 말 온누리상품권 구매 릴레이 캠페인을 벌여 전남지역 판매율을 단숨에 전국 2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 청장은 "현장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창업 열기 이어가기, 수출업체 수출신장률 제고 등 올해도 할 일이 많다"며 "지역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인천 출신으로 홍익대 기계공학과, 영국 버밍엄대학 경영학사와 연세대대학원 기술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과장·운영지원과장·소상공인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은행권 올 수수료 동결… 중도상환은 인하

소비자 볼모 수익 극대화 추구 자제키로
지방은행 수수료는 시중은행보다 비싸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올해 금융 수수료 인상을 사실상 포기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맞춰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수수료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으나 이러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일부 수수료는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의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르면 1분기 내에 최대 30% 인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로써 은행들로서는 수수료 인상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올해 수익성 제고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은행들이 금융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은행의 수수료 인상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은행의 이익이 급감하던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당시 은행 실적 악화를 우려해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다른 은행 수수료 모범 규준을 만들기로 했고, 이에 사실상 인상이 현실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비판에 직면했다. '은행 수수료 현실화'가 서민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었고, 은행이 수입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힐책도 나왔다.

문제는 지방은행이 받는 수수료가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것이다.

국내 17개 은행의 수수료는 같은 은행으로 송금시 창구·자동화기기(ATM)·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모든 은행이 같지만, 그 이외에는 다르다.

타행으로 송금하거나 ATM으로 인출하는 경우만 해도 부과되는 수수료가 다르다. 대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수수료가 더 비싼 편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대개 500원의 수수료가 붙지만, 경남·광주·부산은행은 각각 6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전북은행은 7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타행으로 송금할 때 붙는 수수료는 차이가 더 크다.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16개 은행이 똑같이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산업은행은 면제된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1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물린다. 2배 이상인 셈이다.

/연합뉴스

하나로마트 동림점 오픈 서광주농협(조합장 문병우)이 지난 3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250평 규모의 하나로마트 동림점을 개장하고, 개장을 기념해 1등에 기아차 모닝을 비롯, 이외에도 300만원 상당의 경품행사를 벌인다. 〈광주농협 제공〉

■ 주간 증시 포커스

삼성전자 실적발표 후 반등 기대

새해 첫개장일부터 삼성전자와 자동차주를 비롯한 수출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며 코스피지수가 이틀간 65포인트 하락해 1946포인트로 마감했다. 지수하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조원을 하회할 것이라는 실적우려와 1월 시작되는 미국의 테이퍼링 가속화 가능성 및 환율불안감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의 하락요인중에 삼성전자 실적 우려를 제외하면 하락원인이 지난 몇달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거론되었던 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악재는 아니었다.

테이퍼링이 1월부터 시작됐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미국 10년만기 국채금리는 3%를 넘어섰고 향후 추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테이퍼링 실시에 따른 미국금리의 상승은 달러 강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 하락요인도 만만치 않아 그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선물매도가 삼성전자 실적우려 및 양적완화축소에 따른 이머징국가의 환율불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시장의 관심은 이번주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잠정실적에 집중될 것이다.

잠정실적을 발표한 2010년 아후 분기별 15번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실적 기대감으로 발표전 미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선조정을 받은 경우는 단 3차례였다. 선조정 사례의 경우, 두번은 시장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으며 한번은 어닝쇼크(2Q13 : -6.44%)가 나타난 바 있어 이번주 주후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및 CES(국제 전자제품박람회) 이후 IT 업종은 반등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aT,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 농산물가격안정기금·수산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aT는 매년 농안기금 등을 재원으로 농수산물의 저장·유통·가공 등 수출사업자에게 시설과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융자지원 규모는 8650억원으로 이 중 6650억원을 3월 중순까지 신청 접수받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용도는 계약재배 수매,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과 식품 수출기업의 공장 신축·개보수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금리는 4%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이 1년 이내(계약재배는 5년), 시설자금은 10년 이내이다.

원료구입자금 등 운영자금은 오는 24일까지 계약재배 수매자금은 2월 28일까지, 시설자금은 3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aT 지사에서 수령하거나 공사 홈페이지(http : //www.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파트 외벽 균열 0.3㎜ 넘으면 하자

국토부, 판정기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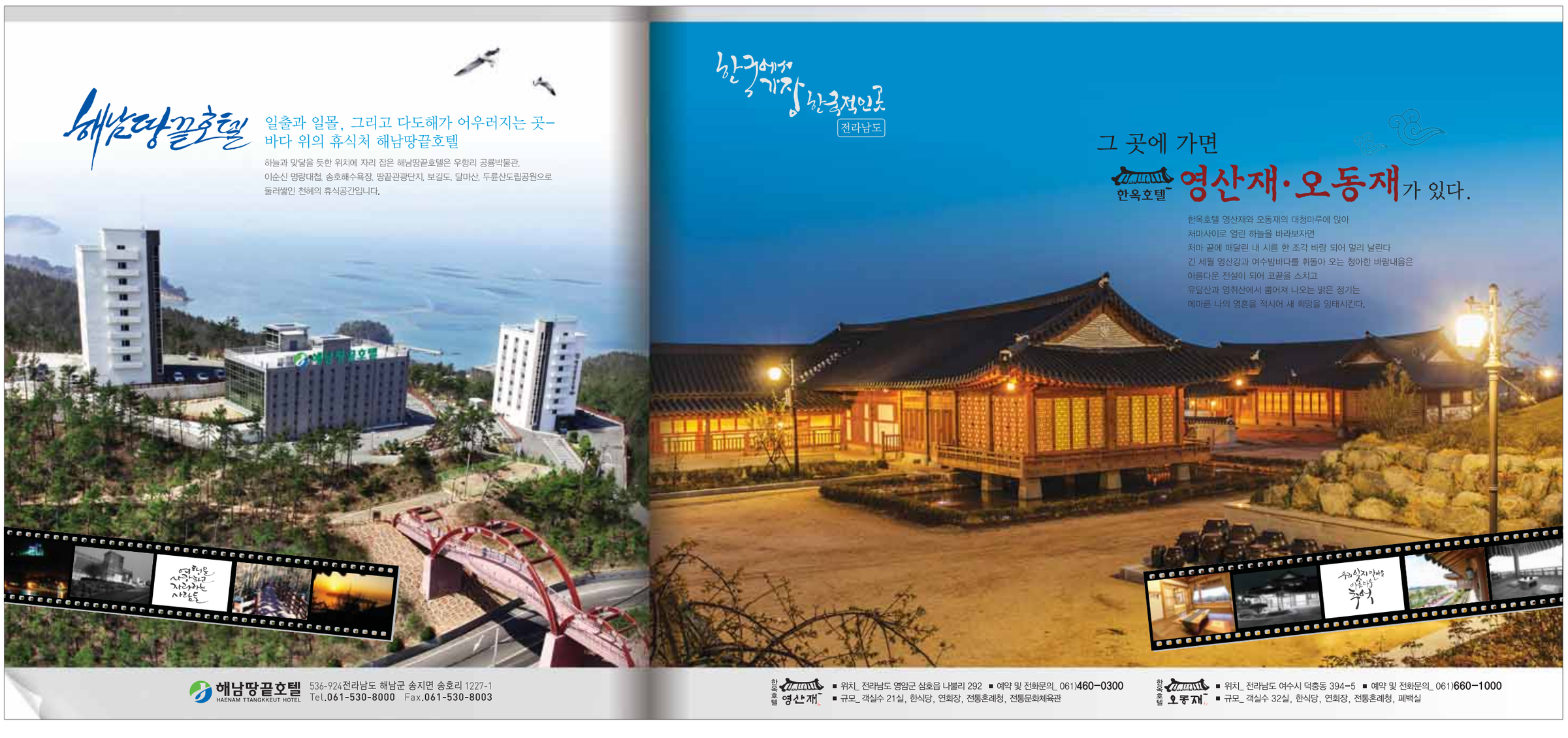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3일 제정·고시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조사관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처리해왔으나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균열 폭은 0.3㎜ 미만이다. 균열의 폭이 그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하자판정 기준은 외벽 외에도 기둥,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슬라브,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균열 폭을 규정했다.

다만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 해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로 인정된다. 결로(이슬 맺힘)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한다.

/연합뉴스